

ICCROM에서 문화재 보존전문가의 훈련과 역할

저자 : GABRIELA KRIST*

역자 : 韓成熙**

『본고는 1991. 11. 18~11. 21까지 일본 경도 국제 회의관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문화재의 보존세미나에서 Gabriela Krist가 특별 강연한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한것임』

目 次

I. 용어의 정의

II. 국가 또는 지역수준의 보존 훈련

III. ICCROM의 국제적 교류

IV. 종이 보존과정

I. 용어의 정의

우리가 일상의 전문적 생활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의 의미와 취지는 문화지역에 따라 각각 다양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몇가지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용한 정의가 있다.

박물관(Museum)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적이며 영구적인 기관이다. “박물관”이란 용어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도서관(Library)과 보관소(Archives)의 역할을 한다.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연구, 소장품을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하는 4가지의 고전적 기능을 갖는다.

보전(Preservation)은 오늘날 이러한 기능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 없이는 연구와 공개가 불가능하고 수집이 무의미하다.

보존(Conservation)은 보전(Preservation)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존은 박물관 분야에서 가장 초보단계이며 이 용어는 1930년 이후에 미술품의 보존에 적용되어졌다. 1930~1940년대 유럽과 미국의 소수 기관에서 손상의 원인을 연구하여 발견된 소장품을 관리하는 데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방적 보존(Preventive Conservation)은 손상원인을 조절하여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그것은 과학적 연구 그리고 부식과 분해의 기작(mechanism)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를 기초로 한다. 박물관 소장품 손상의 주요 원인은 빛, 온도, 습도, 대기 오염물질 등과 같이 환경적인 것이다. 더욱이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기계적 손상, 반응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 미생물과 곤충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이 발생한다. 박물관은 주요 동산문화재에 대한 가장 안정하고 적절한 저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손상은 이러한 기관에서도 발생한다. 외부환경과 비교해서 내부환경을 적당한 기후조건으로 유지해 주면 손상과 노화는 상당히 줄일수 있다.

* ICCROM기획담당관

**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보수(Restoration)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대부분이 국립박물관이 건립된 19세기초에 확립되어졌다. 그 당시에는 회화의 보수가 선구적이 되었다. 보수의 목적은 이미 발생되어진 손상을 고치는 것이다. 손상은 비가역적이며 보수된 유물은 부득이 처리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되기가 어렵다. 철학적 경향에 의해 각각의 보수는 유물을 원래 상태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모든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유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처리가 필연적일 수도 있으며 공문서와 책인 경우에는 유물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전문직업 활동과는 달리 보존전문가의 직업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전문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번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를 특히 anglo-Saxon(영국계)지역에선 보존전문가(Conservator)라 하는 반면에 라틴지역과 독일어권에선 수복기술자(Restorer)라 한다. 또 프랑스 등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보존전문가 - 수복전문가(Conservator-Restorer)라는 복합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 전문가는 아주 책임있는 전문인으로 방법적 접근에 의해 보존과 보수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적절한 실험 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기대한다. 전문가이지만 보존전문가는 단단한 과학적 기초, 예술사, 실제적인 기술과 예술적 감각 등을 고루 갖춘 다방면으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보존전문가의 직무는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시간에 어떤형태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원인이 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박물관에 고용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보존전문가는 비영리성의 소장품우리 가장 좋은 보존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보전과 보존의 기준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사립기관에서 일하는 보존전문가들은 예술품 상인의 필요와 요구에 가끔 직면하기도 한다. 그들은 때때로 박물관 세계에서 작업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보수처리를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보전(Preservation), 보존(Conservation), 보수(Restoration)는 오늘날 소장품을 책임지고 있는 보존전문가의 동일한 활동분야이다. 그러므로 현대 철학은 수리나 어떤 개입을 하기전에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가하고 있는 예방보전의 중요성은 박물관 소장품의 손상과정에 대한 현대 과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 유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서 기인하지만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박물관은 우수한 소장품을 특별전시를 위해 전세계에 빌려준다. 운송되는 소장품은 포장되고 운송되는 동안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를 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II. 국가 또는 지역수준의 보존 훈련

보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 대한 언급없이 보존전문가의 주요 활동이나 책임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여러 전문분야의 교육과 훈련이 전제되고 전문적인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까지 전세계의 보존훈련은 스승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심자들은 대가

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때로는 이론적 과정을 가르치는 외부학원에서 훈련을 보장하였다. 훈련은 대부분 아주 실용적이었다. 그런 훈련의 명성은 대가의 평판으로 직결되었다.

유럽의 몇나라에는 고대 장인조합의 도제로부터 발전해 온 오랜동안 형성된 보수에 대한 훈련과정이 있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비엔나에 있는 Institute for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at the Academy of Fine Arts는 1933년 건립된 5년제 교육과정이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는 1943년 설립되었다. 이들 전통적 교육과정은 특정분야의 보수를 고유하게 갖는다. 가르치는 가장 공통된 과목은 회화 보수이다. 보수가 발전됨에 따라 몇몇 기관은 첨가되는 보존 분야에 대해 특수성에 따른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은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변화된 박물관의 철학은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된 보존전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더 나은 과학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때때로 대학까지 할당되는 현대적 보존훈련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었다. 모든 이들 과정은 실제적 보존, 과학, 역사, 현대미술, 공예기술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실질적, 이론적 훈련에서 주요 중점은 과정의 기간, 수료증과 등급의 수여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입학에 대한 조건은 북아메리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의 몇몇 관계있는 전공(예를 들어 미술사 또는 과학)미술학사 자격을 요구한다. 유럽의 몇몇 기관은 종이와 책보존에 대한 훈련과정의 입학자격으로서 제본 등의 공예 교육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원(academic)수준에서 회화보존은 많은 기관에서 지도하는 반면에 민속용구의 보존에 대한 학원과정은 전세계에서 한 기관에만 개설되어 있다. 종이와 책 보존에 대한 훈련과정은 필사예술의 보존을 제외한 다른 보존분야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고, 대학 수준에서 전문화된 기관(Stuttgart에 4년제, 뉴욕의 Columbia대학교의 대학원과정)이 몇 개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예는 보존에 있어서 비대중적 분야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반면에 몇몇 분야에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모든 문화유산은 역사적·문화적 의미의 한계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현대철학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존노력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제공도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유럽의 현 상황에서 본다면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수여하는 자격증과 졸업증은 자격과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교육과정의 기관과 수준이 현저히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92년에 단일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럽공동체(EC)로 인해 몇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분야에서 이중 노력을 피하고 훈련된 보존전문가들의 고용이 해외에서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훈련과정의 커리큘럼을 단일화 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다.

훈련된 보존전문가들은 복잡한 기술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보존과 보전 방법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실용적 보전과 보수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들은 현재와 미래의 보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박물관의 관리자, 과학자, 관련된 전문가 등과 같은 박물관 전문인들과 그들의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박물관 보존과학자는 이미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학술전문가와 동료로서 동일한 지위와 인식을 받고 있다. 유럽의 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은 공립연구소에 고용하는 회화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 책이나 종이의 보존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동일한 지위와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III. ICCROM의 국제적 교류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의 거대한 손실 때문에 보존과 보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으로 다소 독점적으로 보존을 다루는 소수의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설립을 하게 되었다.

1959년 문화재의 보존과 보수를 연구하는 국제기구인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국제 문화재 보존 보수 센터)가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정부간 조직인 UNESCO에 의해 창설되었다. 본부는 이탈리아정부와 UNESCO사이의 도움으로 로마에 있다. ICCROM은 역사적 건물, 기념물, 유적지, 박물관의 모든 소장품 그리고 도서관과 수장고의 소장품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ICCROM의 업무는 4개의 주요분야인 문서조사, 연구, 조인과 추천 그리고 훈련으로 분류된다.

현존하는 국제적 단체중에서 ICCROM은 전문화된 국제적 훈련과정을 정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보존을 다룬다. 지난 30여년 이상 ICCROM은 조직화된 대학원 훈련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 1966~1990년까지 대부분의 회원국(121국)에서 1736명의 참가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지금까지 ICCROM은 강의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고 ICCROM의 조언을 원하는 회원국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전세계로부터 보존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주시를 받아왔다.

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그것을 공동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ICCROM회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ICCROM의 강사와 교육과정에 참석한 사람들로 국제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ICCROM은 지난 활동에 대한 보고, 새 과정 소개, 변화하는 전문적 정보에 대한 후원을 해주는 회보를 통해 정규적으로 회원들과 연락을 취한다.

ICCROM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과정은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미 훈련된 보존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공공기관, 비영리성 기관에서 일을 하는 지원자와 국가훈련 과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ICCROM 교육과정의 설립 취지는 전문가들간의 경험, 정보, 대화의 교환을 확립하고 강화하자는데 목표를 가진 다양한 문화적, 전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참석자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ICCROM은 로마에 있는 본부에서 매년 다음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 건축학 보존(Architectural Conservation : ARC)
- 벽화보존(Mural Paintings Conservation : MPC)
- 보존의 과학적 원리(Scientific Principles of Conservation : SPC)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박물관 보존 관리(Conservation Management of the Museums of Sub-Saharan Africa : PREMA)

이들 훈련과정들의 기간은 4~11개월로 다양하다.

다양한 과정이 2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이들의 활동은 로마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국제적 기구와 공동으로 하거나 회원국의 적절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두가지 예를 들면 동양 고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국제적 과정(International Course on the Preservation of Earthen Architectural Heritage : 프랑스 그라노블에서 개최)과 종이의 보존과정 (Paper Conservation Course : 지난회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호른에서 개최)이다.

로마와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규 직업 훈련과정에는 주요 ICCROM간부 회원들이 참석한다. 교육과정 관계자의 주요업무는 특별 훈련과정의 준비와 주직이며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평가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규과정외에도 ICCROM은 보존실제와 훈련에 관련된 특별 논제를 다루는 단기간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두가지 예로서 『일본 지류와 섬유의 보수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에 대해 로마와 다른 유럽의 도시들에서 2주간의 세미나를 여러번 개최 하였다. 『교수기술과 교수재료의 사용』에 대한 1주간의 세미나를 매년 로마에서 개최하여 다른 ICCROM교육과정의 참석자들에게 그들의 표현과 교수기술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훈련안에 포함시킨다.

높은 명성의 강의와 참석자로서의 보존전문가 간의 전문적 지식의 교환은 탁월한 ICCROM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연구 분위기를 창조한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가에 대한 강하고 한결같은 요구가 있다.

IV. 종이보존과정

특별 국제적 보존 훈련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ICCROM의 노력과 유도를 ICCROM 종이 보존 교육과정을 예로 사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번 과정은 오스트리아 비인과 호른에서 1991. 8. 2~9. 27까지 개최되었다.

종이와 관련 물질들의 보전과 보존은 오늘날 보존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첫째 도서관, 고문서, 필사예술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막대한 분량이며, 둘째 전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의 보존이 위급한 상태이다.

종이 보존은 필사예술품, 도서류, 고문서류 그리고 파피루스, 팜잎, 가죽재료, 사진 그리고 현대 정보매체와 같은 종이 관련물질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재료에 대해 진행되는 보존, 보전, 보수과정을 망라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 분야로서 종이 보존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고 학원(academic) 수준의 국가적 훈련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조차 보존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의 종이에 대해 모두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종이보존과정은 과학적 원리에 의해 관련된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이보존은 도서재질의 화학적 분해를 연구한 William J. J. Barrow의 선구적인 업적에 의해 1950년대에 비롯되었다. Barrow는 전통적 작업과정에 화학적 기술을 첨가시키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10년내에 종이 보전에 화학적 혁명이 일어났고 화학은 일상적인 보전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ICCROM 종이보존과정에 대한 일정은 한달에서 두달까지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 종이와 관련 물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되었고 책보존과 사진재료의 보존과 같은 다른 중요 과제들은 제외되었다.

프로그램은 2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부분은 종이와 관련 물질들의 구조와 구성, 손상의 원인과 보전의 지침을 망라하는 종이 보전에 있어서의 과학적 원리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종이보전을 위한 화학, 생물학적 손상과 해충 방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소장품의 취급과 보존에 대한 1주간의 세미나를 포함하였다.

둘째부분은 실질적인 보존이 강조되었다. 2주동안 종이보존에 대한 서양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효소의 사용, 탈산화처리, 표백, 배접과 표구기술을 포함한 최신 개발품과 새로운 기술을 방법론적으로 토론하고 설명하고 수행하였다. 좀 더 실질적 작업을 돕기 위해서 참석자들은 종이보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특별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원본으로 작업을 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개개인의 학생들이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그 목적은 종이보존에 있어서 자신의 작업에 적용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다양한 경향과 비교하여 다른 접근법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같은량의 시간을 종이의 보존과 보수에 대한 동양적 기술을 적용하는데 충당하였다. 이 세미나는 1977년 이후 ICCROM과 해외에서 여러차례 workshops을 진행한 일본의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 과정은 가능한 한 원래의 환경과 비슷한 상태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ICCROM에 의해 사들여진 일본의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workshop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장비와 재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현재 제지기술, 종이의 질,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점이 강조되었다.

더군다나 서양의 종이보존 실험실에서 급속히 적용하고 있는 표구와 stretching과정이 설명되어졌으며 참석자들에 의해 실습되었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비엔나에서 일주간의 일정으로 다양하고 잘 알려진 필사예술품 소장관, 연구기관, 보존실험실 등을 방문하는 견학이 포함되었다. 일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특별한 주제는 파피루스의 보존에 대한 연수, 대량 보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 그림의 예술사적, 기술적인 양상에 대한 세미나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기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강의, 설명 그리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작업으로 제공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교육과정을 개최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주요한 오스트리아 소장품과 연구보존기관이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였고 교육과정의 준비와 조직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엔나는 종이보존에 있어서 오랜 전통과 높은 수준을 가진 중심지로서 인식되어져 있다. 공동협력의 결과로서 Albertina Graphic Collection, Austrian National Library, Austrian State Archives, Federal Mounment office of Austria와 같은 주요기관들을 교육과정 참석자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과정중에 이론에서 다루는 것을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보존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현실상황과 연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론과 실제적인 교육은 비엔나에서 약 80km 떨어진 호른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시당국은 이상적인 작업시설을 갖춘 최근에 복원한 회의관을 제공하였다. 참석자들, 강사, 교육과정의 관리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center에서 제공하였다. 이러한 준비는 집중적이고 창조적인 작업 분위기를 갖게하였다. 호른시의 교외지역에는 바로크양식의 수도원 도서관을 포함한 매우 풍부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ICCROM은 이와같이 중요한 소장품을 연구하고, 보존의 상태를 조사하고, 시당국에 그들의 소장품이 더 이상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개선하는 가에 대한 충고를 환영하였다. 그러므로 예방보존에 있어서 두가지의 연구 즉 해충과 환경적 조절에 대해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단체교육 참가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991년 ICCROM Paper Conservation Course에는 13개국 15명이 참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석자의 선출은 ICCROM지침에 따랐다. 선출된 이들은 주로 종이의 보존전문가이며 여기에 자신의 나라에서의 소장품의 보존과 보존에 활발히 활동하는 두명의 보존과 학자와 한명의 관리자로 구성되었다.

소규모의 group는 대회기간 동안 개인지도를 용이하게 하였고 강사와 수강자 사이의 능동적인 참가와 토론을 촉진하였다. 전문적 정보의 전달과 교환은 모든 참석자들이 교육동안 보존의 실제에 있어서 각자의 경험과 개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 교육과정에 특별 교육과정에 참가가 가능한 4개국으로부터 8명의 종이보존전문가가 참관인으로서 참석하였다. 우선권은 오스트리아의 공동 연구기관의 전문가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교육과정 참가자와 우수한 오스트리아 소장품의 보존부문 사이의 전문적·개인적인 연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과정은 시험과제로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ICCROM이 로마 밖에서 진행한 정규 훈련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두 번째 경험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교육과정의 진행은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보존이론과 실제간 밀접한 연계실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강사와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ICCROM과 교육담당진에게 건설적인 제안을 하였다.